

〈혜성가〉와 적극적 방어로서의 언술 전략*

이 완 형**

Ⅰ 국문초록 Ⅰ

이 논문의 발제는 〈혜성가〉와 그 배경기사가 단순히 주술적 기능을 노래하고 있지 않다는 차원에서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일연의 의중, 그리고 그 대체 상관물로서의 〈혜성가〉의 포의와 작자인 용천사의 태도에 대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혜성가〉를 「감통」편에 수록한 의도와 위중한 왜병 침입을 전혀 어울리지 않게 짧은 배경기사에 얹힌 사실과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부정해버리는 노래의 정체성이 관심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혜성가〉와 그 배경기사를 적극적 방어로서의 언술로 읽어야 하는 것은 여기서 기인한다. 그것은 네 가지로서 가능한데, 첫째는 신앙적 언술로서의 불연국토에 대한 확신적 방어 언술이다. 둘째는 안정적 욕구와 타파에 대한 적극적 방어 언술이다. 셋째는 화랑 예찬과 진호국사의 위업이 중의적으로 표징 되는 방어 언술이다. 넷째는 중엄한 경계와 계시를 통한 방어 언술이다. 〈혜성가〉 역시 이와 같은 언술적 방어 기제로서 활용되었다. 실재를 허상으로 간주하는 중의적 부정과 무시는 이러한 흐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통해 일연은 건달파, 달, 별이 지켜주는 불국토, 그리고 용맹무쌍한 화랑과 충지를 보유한 진호국사가 엄연히 존재하는 곳이 바로 신라임을 주지시키고, 그 어떤 외적도 함부로 넘볼 수 없음을 피력하기 위한 언술적 방어 전략을 ‘용천사 혜성가 진평왕대’에 얹고자 했던 것이다.

[주제어] 혜성가, 방어, 언술 전략, 용천사, 향가, 삼국유사, 일연

Ⅰ 목 차 Ⅰ

- | | |
|---------------------|---------------------------|
| I. 서 론 | Ⅲ. 〈혜성가〉의 언술적 방어 전략과 그 기능 |
| Ⅱ. 언술적 방어의 의미와 대응방식 | Ⅳ. 결 론 |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5B5A07049315]

** 한밭대학교 강사 / lwh8259@hanmail.net

I. 서 론

〈해성가〉는 다른 향가에 비해 짧은 기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노래 중의 하나이다. 〈찬기파랑가〉, 〈제망매가〉¹⁾와 함께 배경기사가 노랫말보다 짧은 형태로 전하기 때문이다.²⁾ 하지만 〈찬기파랑가〉나 〈제망매가〉와는 얹혀진 생생기반이나 전달의미가 전혀 다르다. 〈찬기파랑가〉가 선향가(善鄉歌)하는 충당사의 능력을 거론하는 가운데 언급된 노래³⁾이고, 〈제망매가〉역시 선향가하는 월명사와 그의 신이한 능력을 기술하는데 밝혀진 노래⁴⁾인 점에 비해 〈해성가〉는 용천사가 선향가하는 점은 같으나 전란을 예지하고 그것을 진호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짧은 배경기사로 말미암아 논의될 때마다 항상 두 가지 이상의 전제가 붙여 달인다. 하나는 다른 작품에 비해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불교나 무가 정도의 노래로 치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성가〉와 그 배경기사는 전달치와 기대치에서 그 이상의 의미를 수반한다. 먼저 배경기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

해성 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심대성을 범한 것은 어떠한 의도로 읽히는가?

왜병의 침입과 환국은 사실인가?

그렇다면 그것과 해성과의 상관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아울러 용천사와 〈해성가〉를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가?

〈해성가〉역시 다음과 같은 연유로 인해 기대심리가 증가한다.

〈해성가〉와 배경기사 간의 중의적 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해성과 길 쓸 별의 대응은 적대적인가 부정적인가 아니면 다른 뜻을 포함하는가?

〈해성가〉의 포의는 진실인가 거짓인가?

그것과 왜병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의 증험은 사실적인가 신앙적인가?

1) 〈찬기파랑가〉는 ‘경덕왕이 충당사에게 “내 들으니 스님이 기파랑을 찬미한 사되가가 그 뜻이 매우 높다하니 과연 그렇소(朕嘗聞師讚普婆郎詞腦歌 其意甚高 是其果乎).”’라고 묻는 것에서(「기이」 편,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조), 그리고 〈제망매가〉는 ‘월명은 또 일찍이 죽은 누이동생을 위해서 재를 올릴 때, 향가를 지어 그녀를 제사지냈더니 문득 광풍이 일어나 종이돈을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서쪽으로 사라졌다. 향가는 이렇다(明又嘗爲亡妹營齋 作鄉歌祭之 忽有驚颺吹紙錢 飛舉向西而沒 歌曰)’고 서술하고 있는 것에서(「감통」 편, ‘月明師 兜率歌’조) 짧게 언급될 뿐이다.

2) 〈해성가〉는 배경기사가 73자인데 반해 노랫말은 104자이다.

3) 이에 대한 것은 이완형, 「〈讚普婆郎歌〉에 숨겨진 의도와 노래의 기능」, 『어문학』 96, 2007, 참조.

4) 이에 관한 것은 이완형, 「월명사 도술가’조의 이해와 도술가의 성격」, 『어문학』 88, 2005, 참조.

이와 같은 문제와 시각들을 정리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은 상당한 업적으로 축적되어왔다. 그것은 대개 ‘용천사 해성가 진평왕대(融天師羣星歌眞平王代)’조의 서사문맥을 역사적 관점과 설화적 관점에서 폭과 너비를 측정해온 결과물들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야 할 것은 일연의 의중, 그리고 그 대체 상관물로서의 〈해성가〉의 포의(抱意)와 작자인 용천사의 태도이다. 〈해성가〉를 「감통」편에 수록한 의도와 위중한 왜병 침입을 어울리지 않는 짧은 배경기사에 얹힌 사실과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부정해버리는 노래의 정체성이 관심을 촉발하기에 그렇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명해는 〈해성가〉와 ‘용천사 해성가 진평왕대’조에 역사적 또는 설화적 관측의 단순한 접근을 유보시킨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효성을 가진다고 본다. 『삼국유사』 소재의 기록물과 노래들은 일정한 의와 틀과 체를 동분모(同分母)로 한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친연으로 얹어져 있어서 개개의 해체를 용납지 않는다. 특히, 향가의 경우 편목-조목-노래가 하나의 유기적 상관물로 의와 틀과 체를 공유하므로 분리하게 되면 그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만다.⁵⁾ 그것은 곧 텍스트에 숨겨진 진의를 최대한 읽어내는 것과 직통한다.

〈해성가〉와 그 배경기사에 감춰진 적극적 방어로써의 언술을 구명해 보려는 것도 그러한 의도의 일단이라 할 수 있다. 『삼국유사』의 찬술의도가 중국과의 대등한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의 선양 및 고취라는 점도 이와 같은 취지와 부합한다.

II. 언술적 방어의 의미와 대응방식

1. 언술적 방어의 의미 : 전략적 대외 방어 기제

방어는 ‘남이나 적이 침노(侵擄)하는 것을 막아냄’ 또는 ‘다른 개체의 공격이나 상해에 대하여 스스로를 지키려는 개체의 행동과 그 행동적 방위’를 가리키는 광의의 의미로 활용된다. 여기서의 방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자기 또는 단체 나아가 국가까지를 아우르는 ‘막아냄’의 개념이다. 개체간의 싸움이나 단체 간의 저항, 국가 간의 전쟁을 포괄하는 함의의 방어라는 의미다.

그런데 〈해성가〉와 그 배경기사에서의 방어는 좀 다른 의미를 수반한다. 여기에서의 방어는 실제적 전투와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⁶⁾ 그러한 이유로 주문 내지 주술적 언술의 한 형태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잘 알다시피 『삼국유사』는 의외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가능케 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주문이나 주술적 언술의 예는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된다. 법사 아도가 무당과 의원이 못 고치는

5) 이에 관한 것은 이완형, 「三國遺事 鄉歌의 性格과 機能 研究」,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02, 참조.

6) 진평왕 통치기간 중 왜병과 직접적인 전투를 치른 적은 없다. 『삼국사기』 기록을 보더라도 왜병과 접전은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신방성은 떨어지나 『일본서기』 추고천황 8년 춘 2월에 신라와 임나가 전쟁을 벌이자 추고천황이 임나를 도우려 1만여 명의 군사로 신라를 침공하여 5성을 공략했다는 기록이 보인다(『일본서기』 추고천황 8년 봄 2월조).

성국 공주의 병을 고쳤다는 대목⁷⁾이나 법사 밀본이 무당도 처치하지 못하는 귀신을 물리치는 장면은⁸⁾ 신라에도 무당이 존재하였음을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무당과 무격이라는 말이 『삼국유사』에서 별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더군다나 진평왕은 비형랑과 같은 귀신 잡는 아이나 길달 같은 귀신을 집사로 활용할 정도의 안목을 가졌을⁹⁾ 뿐만 아니라 국가를 진호하는 천사옥대¹⁰⁾도 소유한 왕이었다. 그러므로 혜성의 출현이 주문이나 주술로 풀 수 있는 것이었다면 굳이 〈혜성가〉를 부르지 않고도¹¹⁾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이외에도 남녀의 성기 묘사¹²⁾까지도 서슴없이 언급하고 있는 바에야 『삼국유사』가 단순히 연술의 미적확성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석연찮게 해준다.

그런 점에서 ‘용천사 혜성가 진평왕대’조와 〈혜성가〉 역시 단순히 보지적(保持的) 차원에서만 다를 수 없는 포의성(抱意性)이 인식된다. 분명히 왜병이 침입한 결과(배경기사)를 두고 강력한 부정이 두 차례에 걸쳐 노래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부정은 연술적 방어 전략이며, 그것의 대응방식은 일종의 의도적 무시로 간주된다. 거기에는 그 어떤 물리적 힘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으면서도 왜병이라는 폭력적 침략 집단을 일시에 퇴치시켜서다. ‘용천사 혜성가 진평왕대’조와 〈혜성가〉에 연술적 방어 전략이 감지되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연술적 방어는 “당면 문제를 직접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적·심리적인 안정화 및 자기존중감을 강화하기 위한 내적 방비¹³⁾ 또는 그러한 신의적 기구¹⁴⁾ 차원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겠다. 그와 같은 설정이 가능한 것은 왜병의 침탈에 대한 대응방식을 다른 차원에서 제시함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진호함과 동시에 민족자존감 고취를 꾀하고자하는 정신적·심리적 방어 구축의 전략적 기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여져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도가 ‘용천사 혜성가 진평왕대’조와 〈혜성가〉에 내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삼국유사』의 찬술의지와도 맥이 닿아야 함을 의미한다. 잘 알다시피 『삼국유사』의 서술자 일연은 몽고의 잔혹무비한 폐해가 극심하던 고려 21대 희종대부터 25대 충렬왕대까지 살았던 승려였다. 잔악하고 폭압적인 시기에 일연이 할 수 있는 일은 구난과 구완과 구제를 위한 기도와 그것을 적술(的述)하기 위해 글을 남기는 것이었는데 바로 『삼국유사』 찬술이었다. 『삼국유사』가 일연만의 독특한 방어적 연술 전략이 사서와 고승전의 편찬체제를 활용해 엮혀진 것은 그러한 의도의 적기를 위해서였다.¹⁵⁾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주

7) 三年 時成國公主疾 巫醫不効 勅使四方求醫(『삼국유사』 권3, 「홍법」 3, 「阿道基羅」조)

8) 巫覡來祭(『삼국유사』 권5, 「신주」 6, 「密本摧邪」조)

9) 이완형, 「도화녀 비형랑」조의 제의극적 성격 시고, 『한국문학논총』 16, 한국문학회, 1995, 163~180쪽, 참조.

10) 고구려왕이 신라를 치려고 계획하면서 말하기를 “신라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기 때문에 침범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하였더니 첫째는 황룡사의 장륙존상이요, 둘째는 그 절의 구층탑이요, 셋째는 진평왕의 천사옥대입니다 “하니 왕은 곧 계획을 중지하였다(後高麗王將謀伐羅 乃曰 新羅有三寶不可犯 何謂也 皇龍寺丈六尊像 一 其寺九層塔 二 眞平王天賜玉帶三也 乃止其謀, 『삼국유사』 권1, 「기이」 2, 「天賜玉帶」조)는 기록이 전하는 것으로 보아 천사옥대는 국가를 진호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11) 이점은 향가 “대개 시송과 같은 것이었다(蓋詩頌之類歟).”는 언표와도 연관된다. 여기서의 시송은 시경의 송으로도 이해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는 신에게 제사 드리고 조상의 덕을 기리는 노래라는 점에서 주문 내지 주술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12) 『삼국유사』 권2, 「기이」 2, 「文虎王法敏」조와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조 참조.

13) 이완형, 「삼국유사에 나타난 적극적 방어 의지와 그 구현 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45, 2014, 226~227쪽.

14) 여기서의 신의적 기구는 주술적 기능의 주문이 아니라 불교적 차원의 신이감응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15) 이에 대한 것은 이완형, 앞의 논문, 2002와 2014 참조.

목해야 할 것은 바로 서술자 일연의 의도와 연술내용인 ‘용천사 해성가 진평왕대’조와의 동질성이다. 그것의 적시와 이해가 동질성을 회복할 때 서술된 사건의 연술내용과 연술행위의 주체가 일체를 이루면서 연술은 극대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¹⁶⁾ 일연의 방어적 연술 전략이 『삼국유사』에서 자주 목도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중국과의 역사적 대등성 이외에도 일본에 대한 적의 역시 국가적 안위와 민족적 자긍심의 고취 차원에서 방어적 연술 전략으로 각별하게 서술되었다는 것이다. 황룡사 구층탑의 방어적 순서의 중요도를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즉 일본의 침입¹⁷⁾ 제어를 첫째 층에 둔 자체만으로도 그러한 의도가 충분히 감지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무왕이 왜구의 침탈을 방어하기 위해 호국대룡이 되겠다며 스스로 수장을 원한 것에서도 그러한 의도가 엿보인다.¹⁸⁾ 이는 ‘만파식적’조¹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되는데, 천신 김유신의 진호까지 더해지면서 그 어떤 왜병의 침입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단호한 방어적 연술 전략을 내비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용천사 해성가 진평왕대’조와 〈해성가〉의 방어적 연술 전략은 서술자인 일연의 결연한 의지와 연술내용인 왜병의 환국(해성 퇴치)이 적극적으로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또 아무런 부각이나 고지도 없이 단명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용천사의 선행가하는 능력과 신통력 선양에도 주목을 요한다. 이는 그에 초점이 주어질 때 앞에서 제기한 ‘용천사 해성가 진평왕대’조와 〈해성가〉에 대한 이해와 명해가 보다 뚜렷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조목과 노래는 곧 연술적 방어의 실효적 작용성에 대한 피력이며, 그것의 실증적 현시성을 표증하는 자료로서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가능하다. 그 하나는 부처의 감응이다. 둘은 막강한 권위와 힘에 대한 표지이다. 셋은 왕에 대한 경계이다. 넷은 후세에 대한 교훈적 의미이다. 첫 번째는 이 조목이 「감통」편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 두 번째는 향가가 시송과 같다는 인식에서 가능하다. 송(頌)에서의 주목이 주로 조상의 덕과 공적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은 국가의 안위와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막강한 권위를 부여 받아서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았²⁰⁾다는 점에 통해서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비단 신라뿐만 아니라 고려와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가능하다.²¹⁾ 특히 고려시대는 중국과 몽고, 일본에 대한 견제로서 그러한 교훈적 지침이 절실했음에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2. 대응방식 : 부정과 무시의 방어적 연술 전략

‘용천사 해성가 진평왕대’조에서 부정의 연술적 방어 전략과 대응의 의도적 무시 전략이 동시등가적인 효

16) 앤터니 이스톱 저, 박인기 역, 『시와 담론』, 지식산업사, 1994, 74쪽 참조.

17) 『삼국유사』 권3, 「탐상」 4, 「皇龍寺九層塔」조, “若龍宮南皇龍寺 建九層塔 則隣國之災可鎮 第一層日本 第二層中華 第三層吳越 第四層托羅 第五層鷹遊 第六層靺鞨 第七層丹國 第八層女狄 第九層穢貊”

18) 『삼국유사』 권2, 「기이」 2, 「文武王法祿」조, “大王御國二十一年 以永陸二年辛巳崩 遭詔葬於東海中大巖上 王平時常爲智義法師曰 朕身後願爲護國大龍 崇奉佛法 守護邦家 法師曰 龍爲畜報何 王曰 我厭世間榮華久矣 若 報爲畜 則雅合朕懷矣”

19) 『삼국유사』 권2, 「기이」 2, 「萬波息笛」조, “星考今爲海龍 鎮護三韓”

20) 장영백, 「『詩經·頌』에 나타난 憂患意識 初探」, 『중국어문학논집』 61, 중국어문학연구회, 2010, 455쪽.

21) 이에 대한 것은 이완형, 앞의 논문, 2002, 2014 참조.

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내적 기제가 선제되어야 한다. 서술자와 언술행위의 주체 간에 동질성 회복 또는 언술내용과 언술행위의 일체성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내적 장치는 필요하게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용천사 혜성이 진평왕대’조와 〈혜성가〉에서 보이는 언술적 방어 기제로서의 전략은 두 가지로 장치될 수 있다.

하나는 단언적 직설 기제를 통해서 드러난다. 단언적 직설은 사건의 위중성과 급박성, 사태의 심각성과 위급성이 분명히 감지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단명(單名)한 어조로 언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용천사 혜성이 진평왕대’조와 〈혜성가〉에서 왜병의 침입은 기정사실로 판명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혜성 범 심대성’과 ‘일본병 환국’이 거론되거나 혜성의 출현을 두고 길 쓸 별이라고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단언적 직설은 이와 유사한 국가적 위기를 드러내는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와 ‘월명사 도술가’조와의 대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 두 조목의 경우 경덕왕의 무리한 왕권강화와 득남요구로 인해 해공왕의 시해와 무열왕계의 단절이라는 심각성은 감지되지만, ‘용천사 혜성이 진평왕대’조와 같이 국가의 위기감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용천사 혜성이 진평왕대’조는 무리한 왕권강화와 득남요구를 세세하게 다루면서 엄중한 경계를 직시하고 있는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나 일괴(日怪)를 그것의 출현에서부터 즉멸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월명사 도술가’조의 경우와 사뭇 다른 구조로 짜여져 있다. 특히 ‘월명사 도술가’조의 경우 부처의 감응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한편, 이를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감통」편에 수록하고 있는데 반해 ‘용천사 혜성이 진평왕대’조는 같은 「감통」편에 수록되어 있으면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즉, ‘용천사 혜성이 진평왕대’조의 경우 ‘이일병현(二日並現)’과 동궐의 불길한 징조를 유발하는 혜성의 출현에 주목한 점이나, 노래를 부르자 요성(妖星)이 즉멸한 사실을 언급한 점, 그리고 동일한 「감통」편에 수록되어 전한다는 점 등에서²²⁾ 공통 모티프를 구축하고 있으면서도 ‘월명사 도술가’조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단언적 직설은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에서는 충담사의 선향가하는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찬기파랑가〉의 심고함을 묻는 경덕왕에 대해 ‘그렇습니다’라고 단언하는 사실이나²³⁾ ‘월명사 도술가’조에서는 월명사의 선향가와 신이한 능력을 단 한 줄로 표기하고 있는 사실 등에서도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용천사 혜성이 진평왕대’조에서 용천사의 선향가나 신이한 능력에 대해 한 마디의 고지도 없이 바로 그의 신통력을 고지시키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의도라 하겠다. 여기서처럼 일연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의 경우 단명한 표기로 일축해버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둘은 확신적 신의(信倚)²⁴⁾ 기제이다. 확신적 신의 기제는 네 가지 측면에서 그 실증이 가능한데, 첫째는 불연국토에 대한 확신적 방어 언술이다. 이는 이 조목이 「감통」편에 수록되어 있으면서도 불력의 감응이나 그러한 예조가 전혀 없이 국난의 위중함을 부정과 무시의 언술로 치부되고 있는 것에서 확인된다. 분명한 사실인 혜성의 출현과 왜병의 환국을 한갓 허상으로 간주해버리는 것도 모자라 아예 조소에 가까운 단언적 언

22) 이완형, 앞의 논문, 2002, 149쪽 참조.

23) 朕嘗聞師讀善婆郎詞腦歌 其意甚高 是其果乎 然(『삼국유사』 권2, 「기이」 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조)

24) 여기서의 신의는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는 종교 차원에서의 개념이다.

술로 국난의 위중한 위기를 넘겨버리기 때문이다. 그것도 배경기사에서의 부정과 무시가 노래에서 다시 한번 중의적으로 재현되면서²⁵⁾ 그 함의를 증폭시킨다. 그렇다면 「감통」편에 편재된 10개의 조목 중에서 ‘용천사 해성가 진평왕대’조만이 불심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도 이와 같은 조롱에 가까울 정도의 부정과 무시가 가능한 것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강력한 확신 기제가 암시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에 상응하는 분명하고도 진정성 있는 확신 기제가 제시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증이고 위증으로서 서술자, 연술행위, 연술주체, 그리고 독자와의 동질성은 무산되고 말기 때문이다. 여기서 불연국토에 대한 절대적 신의와 확신적 신앙으로서 방어 연술 기제의 필요성은 부각된다. 심대성은 천왕(天王)이라고 불릴 만큼 큰 별이고, 그것은 천자가 천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며, 정령을 내리는 장소에 비유될 뿐만 아니라 창룡의 심장²⁶⁾에 해당되므로 해성이 심대성을 범했다는 것은 왜병이 수도인 경주를 노리고 잠입해 온 것으로 표징 된다. 그런데 이처럼 위중한 사건을 연술행위의 주체자인 용천사는 한갓 허상으로 치부해 버린다. ‘옛날 동해가 건달파가 놀던 성에 왜병이 왔다고 봉화를 올린 변방이 있다.’는 직언은 그러한 차원에서의 강한 부정과 무시다. ‘왜병쯤이야’하는 적극적 방어로써의 신의 기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이다. 그러므로 이는 불연국토와 대성의 신이 감응에 대한 확신과 신의가 기제된 까닭이라 할 수 있다. 부처가 엄연히 응험하는 이 나라에 감히 왜구 따위가 들어올 수 없다는 적극적 방어로써의 연술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곧 서술자인 일연과 연술행위, 연술주체인 용천사와의 동질성이 확보되는 순간이기에 가능하다. 즉, 신성하고 영험한 불국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용천사 해성가 진평왕대’조를 통해서 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안정적 육구와 타파에 대한 적극적 방어 연술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연이 생존한 당시의 고려는 무인의 폭압과 몽고의 잔혹무비에 노출되어 있었다. 아울러 왜구의 출몰에 의한 피해 역시 극심한 시기였다. 특히, 고려시대 왜구의 횡포는 몽고의 일본 정벌과 맞물리면서 고층을 배가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왜구의 침입은 『고려사』에 1350년(충정왕 2) 때가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고려사』의 다른 기록들을 보면 1223년부터 1350년까지 127년 사이에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것이 확인된다. 일연 생존 당시만의 기록을 살펴보면 1225년(고종 12) 4월에 경상도 연해를 침입한 왜선을 생포하였고, 1226년과 1227년에는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왜구의 침입이 있었으며, 1263년(원종 4)에도 물도(勿島)에 왜구가 침입하여 약탈을 일삼았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리고 몽고의 침략이 있을 무렵에도 왜구의 침입은 계속되었다.²⁷⁾ 그러한 국내외의 불안한 정치적 요인을 추스르고 민족적 자긍심 고취와 역사적 우위성 피력을 위한 찬술이 『삼국유사』임을 감안한다면 ‘용천사 해성가 진평왕대’에 얹혀진 일연의 결연한 의지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왜구의 조연선(漕連船) 피탈과 불통으로 인해 구품관(九品官)의 녹봉을 주지 못하고 개성천도론(開城遷都論)까지²⁸⁾ 거론되다가 급기야는 국망을 단축시켰다는 역사적 증빙은 그 피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25) 배경기사에 부정, 무시된 내용이 〈해성가〉에서 다시 이중적으로 부정된다. 제1구~4구에서 허상으로 부정해버린 것에 대한 또 다른 부정이 이를 확인시켜준다. 또 해성이 화랑의 앞길을 인도하는 ‘길 쓸 별로 치환되는 것 역시 그러한 면을 입증시켜준다.

26) 김승찬, 『韓國上古文學論』, 새문社, 1987, 90쪽.

27) 이에 대한 것은 박옥휴, 「고려시대의 왜구」, 『인문논총』 4, 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247~273쪽 참조.

28) 이현종, 「고려와 일본과의 관계」, 『東洋學學術會議講演』 6,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1976, 253쪽.

알게 해준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과 국가적 우위성, 종교적 신위성, 개인적 충성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일연은 ‘연오랑과 세오녀’조²⁹⁾를 부기하고 ‘문무왕 법민’조³⁰⁾를 수록한 뒤, 김유신의 천신 진호³¹⁾까지 피력했으며, 나아가 박제상을 김제상으로 바꿔가면서까지 왜왕에 대한 지사불굴의 의지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³²⁾ 그렇기 때문에 ‘용천사 혜성이 진평대왕’조와 〈혜성가〉에서의 적극적 언술로서의 방어는 부정과 무시로 극대화된다. 과거에 건달파가 놀던 성을 바라보고 왜병이 왔다고 사된 것이 허상인 것처럼 이번에도 삼화지도(三花之徒)가 풍악에 놀러 가는 길을 밝히는 ‘길 쓸 별’을 보고 또 왜병이 왔다는 것 역시 과거의 오류처럼 한갓 헛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서다. 불연국토에 천손이 거하고 해와 달마저 지켜주며, 건달파가 노닐 정도로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이 땅에 왜병 따위가 어찌 범접할 수 있겠는가를 천명함으로써 내적 방어의 내밀을 피하고, 외적 진호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언술하고 있다. 그러한 안정적 욕구와 불신 타파를 재차 강조하기 위해 〈혜성가〉 10구에서 다시 한 번 ‘무슨 혜성이 있을꼬’라고 반문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셋째는 화랑 예찬과 진호국사의 위엄이 중의적으로 표징 되는 방어 언술이다. 먼저 화랑 예찬은 화랑이 부처의 변신으로까지³³⁾ 추앙되는 신위적 진호성에서 드러난다.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확인되는데, 첫 번째는 혜성이 심대성을 범하는 불길한 징조를 감지할 수 있는 예지를 부각시키는 데서 드러난다. 두 번째는 풍악으로 놀러 가는 화랑의 무리를 달이 밝혀주고 별이 쓸어줄 정도로 그 위대함이 돋보인다는 데서 찾아진다. 세 번째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 오유(遊娛)마저도 포기할 줄 아는 충성심을 찬양하고 있는 데서 느껴진다. 이는 우리에게서는 용맹 무쌍하고 즐거운 화랑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찌 혜성(왜병의 침입) 따위가 출현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과도 연결³⁴⁾되면서 혜성과 왜병에 대한 강한 부정과 무시로 촉발된다. 예지되고 인지된 어떤 존재와 그 감응에 대한 절대적 신앙과 초월적 신뢰가 없다면 그렇게 단호하고 단명하게 실재된 현상을 부정 또는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용천사 혜성이 진평대왕’조와 〈혜성가〉가 「감통」편에 수록될 수밖에 없는 조건적 명시임과 동시에 적극적 방어 언술로서의 기회를 획득케 하는 존재성에 대한 증험적 입증이라 하겠다. 「감통」이 부처의 자비원력이 감응하는 영응력에 대한 총지(總持)를 보존토록 하는 의도에서 기술된 점을 따른다면 화랑에 대한 일연의 예우는 설득력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진호국사인 용천사의 위엄과도 맥이 통하면서 그와 같은 조건적 명시와 존재적 증험을

29) 『삼국유사』 권1, 「기이」 2, ‘延鳥郎細鳥女’조. ‘연오랑과 세오녀’조는 일본과의 민족적 문화적 우위를 드러내준다. 이는 ‘김제상’조와는 극명하게 차별화를 보임으로써 한껏 위상을 높이는 정신적 위상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의 왕과 왕비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연오랑에게 신라로 돌아갈 것을 부탁하자 하늘의 뜻이라면서 세오녀가 짜던 가는 벼로 대신한다는 점이다. 이 역시 왜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떠나 친선친선의 사상적 우위를 점유하는 동시에 지배적 구조의 다른 방향제시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다 하겠다(이완형, 앞의 논문, 2014, 240쪽 참조).

30) 『삼국유사』 권2, 「기이」 2, ‘文武王法敏’조

31) 『삼국유사』 권2, 「기이」 2, ‘萬波息笛’조

32) 『삼국유사』 권1, 「기이」 2, ‘奈勿王金堤上’조. 이에 대해서는 이완형, 앞의 논문, 2014, 239~240쪽 참조.

33) 이는 僧 眞慈가 부처가 화한 미시랑(彌勒仙花)를 집견하고 예로써 존송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진자가 미시랑을 진지왕에게 보이자 진지왕은 그를 존경하여 국선으로 삼았으며, 진자는 그를 7년 동안이나 보좌하는 것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삼국유사』 권3, 「탐상」 4, ‘彌勒仙花末尸郎眞慈師’조 참조.

34) 이완형, 앞의 논문, 2002, 151쪽.

가능케 해준다.³⁵⁾ 용천사 역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진호국사의 위엄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그의 선행가하는 능력이다. 이는 충당사, 월명사, 영재와 함께 신라 향가의 주류가 승려임을 확인시켜줌과 동시에 그것이 곧 ‘천지감동(能感動天地鬼神者非一)’과 맥이 닿아서다. 두 번째는 그가 낭도지수(徒之上首)로서 지성지덕으로 대성(大聖)에게 소격(昭假)을 행하던 승려였다는 점에서도. 아무리 선행가로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능케 하는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면 대성이 감응할 리 없기 때문이다. 충당사, 월명사, 영재와 달리 불심에 대한 구체적인 언질도 없이 요성즉멸의 신이감응을 소개하면서 「감통」편에 수록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는 월명사, 충당사와 더불어 국선(國仙)의 무리에 속하는 낭도승으로서 선사나 대덕은 아니지만 괴변이나 괴사 등을 퇴치시키는 기능(器能)을 수행하는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총지를 보유한 승려로서 화랑의 교육을 담당한 지도자여서다. 그는 어린 국선을 시봉하고 보좌하면서 그 단체의 운영을 맡아 도중(徒衆)을 지도하였는데, 특히 향가를 지어 가르치며 정서교육을³⁶⁾ 담당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³⁷⁾

넷째는 중엄한 경계와 계시를 통한 방어 언술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는 외우내환의 질곡에서 조금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암운과 격랑의 시대였다. 그러한 시대적 착종 속에서 정치적 암투와 민족적 말살, 그리고 종교적 폐약을 직접 체험했던 일연으로서는 외세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승려인 그로서는 그 시대적 착종과 폐약을 뒤집을 만한 어떤 방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그에게 그러한 착종과 폐약을 고발하고 그를 통해 민족적 자긍심과 역사적 우위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도가 있었다면 바로 『삼국유사』 찬술이었다. 일연은 몽고의 집요한 감시를 피하고 간계한 매국도들을 속이면서 민족적 자긍심과 역사적 우위성을 선양하기 위해 정치한 기술과 절묘한 비유로 『삼국유사』를 집필하였던 것이다. 그렇다 보니 『삼국유사』 곳곳에서 그만의 정치적 기제가 드러나는데 경계와 계시 역시 그러한 방법론 중의 하나였다. 이는 국망 예조와 왕위단절 계시 형태의 기제로 대별되는데 ‘차용랑 망해사’조³⁸⁾가 신라의 멸망을, ‘보장봉로 보덕이암’조³⁹⁾가 고구려의 멸망을, ‘태종춘추공’조⁴⁰⁾가 백제의 멸망을 각각 예조하고 있음은 앞의 예이고, ‘경덕왕 충당사 표훈대덕’조와 ‘월명사 도술가’조(경덕왕의 실정과 무리한 득남 요구로 인한 왕위 단절)의 계시⁴¹⁾ 및 황룡사의 벼락⁴²⁾은 뒤의 예라 하겠다.

35) 이는 「감통」편에 수록된 조목 중 ‘김현감호’를 제외한 9편이 승려에 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물론 ‘김현감호’ 역시 신이감응에 관한 이야기임에 틀림없으며, 중국과의 민족적 우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제였음도 사실이다. ‘김현감호’조 말미의 기록은 이를 분명히 반증시키기 때문이다. “슬프다! 신도징과 김현의 두 사람이 짐승을 접촉했을 때, (호랑이가) 변해서 사람의 아내가 된 것은 마찬가지였으나, (신도징의 호랑이가) 사람을 배반하는 시를 보내고 으르렁거리고 할퀴면서 달아난 것은 김현의 법과는 달랐다. 김현의 법은 마지못해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혔으나 좋은 방문을 잘 가르쳐 주어 사람들을 구제하게 했으니 짐승으로서도 어질기가 그와 같았던 것이다. (噫證現二公之接異物也 變爲人妾則同矣 而贈背人詩 然後嗥吼擎攫而走 與現之虎異矣 現之虎不得已而傷人 然善誘良方以救人, 『삼국유사』 권5, 「기이」 7, ‘金現感虎’조)”

36) 김영태, 「僧侶郎徒考 - 花郎道와 佛教와의 관계 - 考察」, 『佛敎學報』 7,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70, 265~267쪽 참조.

37) 이는 삼국유사 소재 향가 중 화랑의 작품은 1편(〈모죽지랑가〉)인데 반해 승려의 작품은 7편(〈안민가〉, 〈찬기파랑가〉, 〈원왕생가〉, 〈도술가〉, 〈제맹매가〉, 〈해성가〉, 〈우적가〉)인 점에서도 알 수 있다.

38) 『삼국유사』 권2, 「기이」 2, ‘處容郎望海寺’조.

39) 『삼국유사』 권3, 「홍법」 3, ‘寶藏奉老普德移庵’조.

40) 『삼국유사』 권2, 「기이」 2, ‘太宗春秋公’조.

41) 『삼국유사』 권2, 「기이」 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조.

그런 차원에서 ‘용천사 혜성가 진평왕대’조와 〈혜성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단순히 왜병의 침입과 한국을 혜성가에 얹혀서 부른 노래 이면에 경계와 방어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술자인 일연의 의도와도 부합하면서 이 조목의 명시적 의미를 부가시킨다. 혼용무도와 패악비도한 속세에서 승려이자 국사였던 일연으로서의 국가와 백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달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몽고의 징용적 일본 원정 요구에 동참한 그에게 이러한 시대적 착종은 더욱 참혹하고 비분강개하게 비춰졌을 것이다.⁴³⁾

이로써 볼 때 지성지덕의 불심에서 발현된 용천사의 괴변 퇴치 능력 또한 충당사나 월명사, 영재와 마찬가지로 왕과 화랑은 물론 신라인들의 숭앙을 받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신이감응은 신라시대에 잦았던 왜병의 침입을 막는데 언술적 방어로서 주효한 전략적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와 같은 용천사의 신이감응 능력은 고려 때의 왜병 퇴치와도 밀접한 관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중국에 못지않은 불력을 보여주기 위한 시사적 의도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는 곧 화랑과 낭도승의 구국의식을 선양함은 물론 왕과 후세를 경계 제시하기 위한 일연의 의도적인 조목 배열이라고 할 수 있겠다.

Ⅲ. 〈혜성가〉의 언술적 방어 전략과 그 기능

‘용천사 혜성가 진평왕대’조가 언술적 방어 전략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도가 〈혜성가〉에서도 보여져야 한다. 그리고 이 조목과 노래가 서술자와 언술내용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개 시송과 같은 것이었다(蓋詩頌之類歟)”는 언표와의 동질성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송(頌)의 특징과 대비를 통해서 가능해지는데,⁴⁴⁾ 송(頌)이 신에게 제사 드리고 조상의 덕과 공적을 찬양한 내용이었다고 할 때 거기에는 몇 가지 함의가 공통적으로 내재한다. 하나는 국가의 안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며, 둘은 후왕들을 경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셋은 교훈적 의미를 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 의도에서 흥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자수가 자유로웠으며, 메시지가 간단명료해야 했다는 것이다.⁴⁵⁾ 그렇다면 ‘용천사 혜성가 진평왕대’조와 〈혜성가〉에서 이러한 송의 특성이 친연성으로 탐지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만 “대개 시송과 같

42) 황룡사의 비락은 신라 때 두 번, 고려 때 세 번 보인다. 이는 결국 몽고의 침탈을 경계하는 예조였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경향을 더욱 뚜렷이 보여준다(삼국유사 권3, 탑상 4, ‘皇龍寺九層塔’조 참조).

43) “황룡사의 호법룡은 나의 맏아들이요. 범왕의 명령을 받고 그 절에 가서 보호하고 있으니 그대가 귀국하여 황룡사에 구충탑을 세우면 주위의 여러 나라가 스스로 항복하고 구한(九韓)이 조공을 바칠 것이요, 왕조가 길이 평안할 것이다.”(皇龍寺護法龍 是吾長子 受梵王之命 來護是寺 歸本國 成九層塔於寺中 隣國降伏 九韓來貢 王祚永安矣, 『삼국유사』 권3, 탑상 4, ‘皇龍寺九層塔’조)는 일연의 시대적 착종에 대한 피 끓는 토로였다.

44) 이를 위해 「주송(周頌)」 ‘청묘지습(淸廟之什)’의 〈청묘(淸廟)〉를 들어보면 “아아, 그윽하고 청정한 묘당이며/제후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제사를 돕도다/많은 인재들이 문왕의 덕을 받들어/하늘에 계신 신령께 보답하려고/재빨리 묘당 안을 오가네/밝고 아름다운 큰 덕이기에/우러러 모셔도 사람들 싫증이 없네(於穆淸廟 肅雝顯相/濟濟多士 秉文之德/對越在天 駿奔走在廟/不顯不承 無射於人斯).” 그 내용이 주 문왕(文王)을 제사지낼 때 불린 노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송과 향가의 동질성은 그 내용보다는 그것이 가지는 특성에서 찾을 수 있겠다.

45) 장영백, 앞의 논문, 454~456쪽 참조.

은 것이었다(蓋詩頌之類歟)”는 언표는 확증성을 획득케 된다. 그것이 곧 향가의 특성을 가능해주는 언표와의 상통성을 가능하게 해주고, 서술자의 포의와 연술내용의 직설이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여기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부분이다. 「주송(周頌)」〈민여소자 지습(閔予小子之什)〉의 〈소비(小毖)〉에 “내가 (관숙과 채숙의 화로써) 깨우쳐 경계하려함은 후환을 신중히 대비하기 위함이라네(予其懲 而毖後患)”⁴⁶⁾라는 구절에서 이는 확인되는데 바로 〈해성가〉의 연술적 방어 전략과 그 의도가 상통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라는 것은 작은 것에 삼가 한 것이니, 작은 것에 삼가 한다면 대환(大患)이 말미암아 이를 수 없을 것이다.”⁴⁷⁾라는 경계의 의미가 ‘용천사 해성가 진평왕대’조와 〈해성가〉에서도 탐지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해성가〉역시 진호(鎮護)의 이미지가 선명하다. 사건의 위중성과 급박성,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과 절체성 등으로 볼 때 부정과 무시로 이야기 되어질 속성의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명백하게 단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러한 면이 목도되기 때문이다. ‘그 때 용천사가 노래를 지어 그것을 불렀더니 성괴는 즉시 사라지고 일본병도 제 나라로 돌아가 버렸으므로 도리어 복된 경사가 되었다.’⁴⁸⁾는 기록은 그러한 단언적 표지가 아닐 수 없다. 역사적 사실이야 어떻든 배경기사의 문면으로 보면 분명히 해성은 왜병의 침략을 예견하는 징험으로 간주되고 그러한 사실은 성괴가 즉멸하자 일본병이 환국했다는 기록의 확연성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신라인들은 늘 향가를 숭상했다고 했고, 그것을 시송(詩頌)에까지 견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경』의 송은 제사지낼 때 부른 노래임에는 틀림없지만 주술적인 성격은 띄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해성가〉도 마찬가지다. 앞에서 언급한 진평왕의 주변적 상황이 그러한 취지를 밝혀준다. 이는 일연의 『삼국유사』 향가 배열의도와도 맞물리면서 〈해성가〉의 기능과 목적을 보다 분명히 보여준다. 그것은 곧 〈해성가〉가 불교적 신이감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인증인 셈이다. 『삼국유사』에서 불교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홍법」, 「탑상」, 「신주」, 「감통」편에 편재되어 있는데 〈해성가〉역시 여기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해성가〉가 그 배경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월명사 도술가’의 경우처럼 부처의 응험을 피력하고 있음과 맞물린다. 그것은 월명사와 용천사가 낭도승이면서 미륵화신을 섬겼다는 공통적 특성이외에도 조목명의 동일 표기 방식(‘용천사 해성가 진평왕대’와 ‘월명사 도술가’)이나 괴변퇴치(요성과 일괴)의 신이감응에서 그 상통함이 보이기 때문이다.

46) 소비(小毖)는 주나라 成王의 고사에서 비롯된 시이다. 성왕은 나이가 어린 데다 주나라가 천하를 막 평정한 직후에 즉위하였으므로 숙부인 주공(周公)이 제후들이 배반할까 두려워 섭정을 하게 되었는데, 주공의 형제인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은 은나라 주왕(紂王)의 아들인 무경(武庚)과 결탁하여 주공이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다. 어린 성왕이 차츰 그 말을 믿어 주공을 의심하므로 주공은 할 수 없이 성왕의 곁을 떠났다. 주공이 떠나자 관숙과 채숙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란을 꾀하였다. 성왕은 그때서야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고 급히 주공을 다시 불러들였다. 주공이 돌아와 반란을 진압하고 무경과 관숙을 처서 죽이고 채숙을 귀양 보냈다. 성왕은 나중에 이 일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여러 신하들 앞에서 “내 지난 일을 징계하여 후환을 삼가리라.”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징전비후(懲前毖後)라는 고사성어가 유래하였는데, 지난날의 과오를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을 비유하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47) 『시경(詩經)』, 「주송(周頌)」, 「민여소자지습(閔予小子之什)」, 蘇氏曰 小毖者 謹之於小也 謹之於小 則大患 無由至矣.

48) 時天師作歌歌之 星怪即滅 日本兵還國 反成福慶(『삼국유사』 권5, 「감통」 7, 「融天師 慧星歌 眞平王代」조)

舊理東尸汀叱	옛날 동쪽 물가
乾達婆矣游烏隱城叱盼良望良古	건달파가 논 성을 바라고,
倭理叱軍置來叱多	왜군도 왔다
烽燒邪隱邊也蔽耶	봉화를 든 변방이 있어라
三花矣岳音見賜烏尸聞古	세 화랑의 산 보신다는 말씀 듣고
月置八切爾數於將來尸波衣	달도 부지런히 등불을 켜는데,
道尸掃尸星利望良古	길 쓸 별 바라고
彗星也白反也人有叱多	혜성이여 하고 사ړ인 사람이 있구나
後句 達阿羅浮去伊叱等邪	아아, 달은 저 아래로 떠갔더라
此也友物北所音叱慧叱只有叱故	이에 무슨 혜성이 있을까 ⁴⁹⁾

〈혜성가〉의 적극적 방어로써의 언술 전략은 외면적 기제와 내면적 기제를 통해서 중의적으로 드러나는데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외면적 기제는 1·2차 부정과 무시로 촉발되는데, 1차 부정은 과거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허상을 실체로 착각한 데서 기인된다. 건달파가 놀던 성을 보고 왜병이 왔다고 사ړ는 것에 대해 가차 없는 무시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회상이기 때문에 절대성은 띄지 않는다. 하지만 2차 부정과 무시에서는 보다 강력한 힘이 얹히게 된다. 혜성이 심대성을 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은 곧 왜병이 신라를 침략하는 절박한 암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갓 허상이라고 강하게 부인하기 때문이다. ‘화랑이 놀러 가는 길을 쓰는 별이 무슨 혜성이냐’는 강한 반문은 이러한 상황의 직시이자 고지이다. 달마저 밝혀주는 그 길을 감히 혜성(왜병) 따위가 침범할 수 없다는 강한 방어적 언술이자 언명인 것이다.

다음으로 내면적 기제는 위대함과 폄시를 통해서 확인된다. 먼저 위대함은 화랑의 유오⁵⁰⁾에 대해 달과 별이 길을 쓸어 줄 정도로 화랑의 위력을 여과 없이 노래되고 있는데서 보여진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연의 화랑 존숭과 찬모와도 맞물리면서 강한 방어적 언술을 지향한다, 반면 폄시는 혜성이나 왜병의 출현을 한갓 허상으로 치부하는 데에서 밝혀진다. 선향가하는 진호국사의 위용을 선양하면서 그것을 전략적 대왜 방어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대성의 신이감응에 대한 예찬과 총지의 피력으로 상징된다. 왜병의 침입까지도 예견해주는 호국신과 그 신이감응이 진호국사의 신통력으로 이어지는 감통이 이 땅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외면적 기제는 1차 부정과 무시(허상을 실체로 착각 : 과거) → 2차 부정과 무시(실체를 허상으로 판단 : 현재) → 반문(강조 : 강력한 언술적 방어 전략 피력)으로 그려진다. 반면 내면적 기제는 1차 위대함 선양(건달파가 논 성 : 실상), 1차 폄시(왜병 : 오류) → 2차 위대함 선양(달, 길 쓸 별 : 실상), 폄시(혜성 : 오류)으로 나타낼 수 있다.

다음으로 ‘건달파’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자. ‘건달파’의 실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데, 하나는 신기루로 보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신장(神將)으로 보는 경우다. 어느 쪽으로 보든 이는 봉화를

49) 〈혜성가〉 해독은 선험들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재구한 것임.

50) 遊는 그 상징적 의미나 역사적 배경이야 어떻든 일차적인 의미는 ‘논다’라는 遊娛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올린 사람이 잘못 판단한 것이 되며, 왜병의 출현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허상을 실제로 본 것에 대한 판단의 오류라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그저 판단의 오류라는 차원에 머물지만, 후자의 경우는 강한 부정과 무시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즉 ‘건달파’가 노는 신성하고 영험한 이 땅 즉, 불연국토인 경주를 하찮고 보잘 것 없는 왜병이 어찌 침입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반문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잘 알 다시피 건달파는 八部衆神 중의 하나로 天樂神이며 四天王天 중 東洲持國王의 多羅吒天王 밑에 있는 神將인데 신라인의 불연국토사상에 의해 신라에 정착하게 된 천신을 말한다. 이러한 건달파가 〈해성가〉에 등장한 것은 결국 호국신앙과 연결된다 하겠다.

이로써 볼 때 〈해성가〉와 그 배경기사는 ‘실체(彗星犯心大星 — 일본병의 침입) → 노래[1차 부인(제1구~4구) → 2차 부인(제5구~6구)] → 실체(彗星即滅 — 일본병 한국 — 反成福慶)’의 이중적 구조를 통해 적극적 방어로서의 연술 전략을 토로하고 있다 하겠다.⁵¹⁾

그런 의미에서 이 조목 역시 일연의 민족의식이 강하게 드러난다. 특히 왜병에 대한 신라인들의 적대감을 통해 고려인들의 적의를 들쳐 내고, 그를 통해 정치적 경계와 계시를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 즉, 건달파, 달, 별이 지켜주는 불국토, 그리고 용맹무쌍한 화랑과 충지를 보유했던 진호국사가 엄연히 존재하는 곳이 바로 신라임을 주지시키고, 그 어떤 외적도 함부로 넘볼 수 없음을 피력하기 위한 연술적 방어 전략이 바로 ‘용천사 해성가 진평왕대’라는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유린을 당하고 있고 민족적으로는 굴욕을 당하고 있는 고려의 상황을 보면 일연이 이를 간과했을 리 없다. 몽고나 중국 그 어떤 나라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국가임을 자부하는 일연의 민족의식이 숨어 있다고 보겠다.

IV. 결 론

〈해성가〉와 그 배경기사는 단순히 주술적 기능을 노래하고 있지 않다는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눈여겨야 할 것은 일연의 의중, 그리고 그 대체 상관물로서의 〈해성가〉의 포의와 작자인 용천사의 태도이다. 〈해성가〉를 「감통」편에 수록한 의도와 위중한 왜병 침입을 전혀 어울리지 않게 짧은 배경기사에 얹힌 사실과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부정해버리는 노래의 정체성이 관심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는 〈해성가〉와 ‘용천사 해성가 진평왕대’조에 역사적 또는 설화적 관측의 단순한 접근을 유보시킨다. 〈해성가〉와 그 배경기사를 적극적 방어로서의 연술로 읽어야 하는 것은 여기서 기인한다. 그것은 네 가지로서 가능한데, 첫째는 신앙적 연술로서의 불연국토에 대한 확신적 방어 연술이다. 해성이 심대성을 범한 사건 즉, 왜병이 신라 경주를 노리고 잠입해 온 사실을 부정, 무시하는 것은 부처가 엄연히 응험하는 이 나라에 감히 왜구 따위가 들어올 수 없다는 적극적 방어로서의 연술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안정적 욕구와 타파에 대한 적극적 방어 연술이다. 과거에도 건달파가 놀던 성을 바라보고 왜병이 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51) 이완형, 앞의 논문, 2002, 150쪽.

삼화지도가 풍악에 놀러 가는 ‘길 쓸 별’을 바라보고 또 왜병이 왔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오류처럼 이 역시 허상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화랑 예찬과 진호국사의 위엄이 중의적으로 표징 되는 방어 언술이다. 먼저 화랑 예찬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보여진다. 첫 번째는 혜성이 심대성을 범하는 불길한 징조를 감지할 수 있는 예지의 부각이다. 두 번째는 풍악으로 놀러 가는 화랑의 무리를 달이 밝혀주고 별이 쓸어줄 정도로 그 위대함의 표출이다. 세 번째는 국가의 안위를 위해 오유마저도 포기할 줄 아는 충성심의 찬양이다. 이는 우리에게 용맹 무쌍하고 슬기로운 화랑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찌 혜성(왜병의 침입) 따위가 출현할 수 있겠느냐는 강한 반문과도 연결된다. 다음으로 진호국사의 위엄은 용천사로부터 비롯된다. 용천사의 선행가하는 능력을 피력함과 동시에 불심에서 발로된 괴변 퇴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넷째는 중엄한 경계와 계시를 통한 방어 언술이다. 이것은 왜병에 대한 신라인들의 적대감을 통해 고려인들의 적의를 드러냄과 동시에 정치적 경계와 계시를 통해 적시된다.

그리고 〈혜성가〉 역시 방어적 기능으로서의 언술이라는 것이다. 〈혜성가〉의 적극적 방어로써의 언술 전략은 1차 부인(허상을 실제로 착각 : 과거) → 2차 부인(실체를 허상으로 판단 : 현재) → 반문(강조)의 이중적 부정구조를 통해 드러난다. 이는 분명히 실재하는 현상을 강하게 부인함으로써 혜성(왜병의 침입)을 물리치려는 강한 염원이 내재된 결과이다. 그것은 일연의 민족의식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건달파, 달, 별이 지켜주는 불국토, 그리고 용맹무쌍한 화랑과 충지를 보유한 진호국사가 엄연히 존재하는 곳이 바로 신라임을 주지시키고, 그 어떤 외적도 함부로 넘볼 수 없음을 피력하기 위한 언술적 방어 전략이 바로 ‘용천사 혜성가 진평왕대’라는 것이다.

〈참고문헌〉

- 고운기, 「일연의 글쓰기에서 정치적 감각 - 삼국유사 서술방법의 연구 · 2」, 『한국언어문화』 42,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 김승찬, 『韓國上古文學論』, 새문社, 1987.
- 김영태, 「僧侶郎徒考-花郎道와 佛敎와의 關係 一考察」, 『佛敎學報』 7,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70.
- 박옥휴, 「고려시대의 왜구」, 『인문논총』 4, 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 서영교, 「『삼국유사』 感通의 「彗星歌」 創作 背景」,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1.
- 서철원, 「진평왕대(眞平王代)의 〈혜성가(彗星歌)〉와 〈서동요(謠童謠)〉 비교 : 인물 형상과 시적 자아의 성격을 중심으로」, 『古典文學研究』 30, 한국고전문화학회, 2006.
- 신영명, 「7세기 초 신라 정치사와 〈혜성가〉」, 『우리어문연구』 24, 우리어문학회, 2008.
- 앤서니 이스툼 저, 박인기 역, 『시와 담론』, 지식산업사, 1994.
- 양희철, 『삼국유사 향가 연구』, 태學社, 1997.

- 이승남, 「혜성가의 배경적 의미와 문학적 형상화」, 『국어국문학』 123, 국어국문학회, 1999.
- 이완형, 「도화녀 비형량'조의 제의극적 시고」, 『한국문학논총』 16, 한국문학회, 1995.
- 이완형, 「三國遺事 鄉歌의 性格과 機能 研究」,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이완형, 「월명사 도술가'조의 이해와 도술가의 성격」, 『語文學』 88, 한국어문학회, 2005.
- 이완형, 「〈讚耆婆郎歌〉에 숨겨진 의도와 노래의 기능」, 『어문학』 96, 한국어문학회, 2007.
- 이완형, 「삼국유사에 나타난 적극적 방어 의지와 그 구현 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45, 한국문예비평학회, 2014.
- 이찬욱 외, 「遊娛山水의 觀點에서 본 「曄星歌」」, 『우리어문연구』 17, 우리어문연구학회, 2004.
- 이현중, 「고려와 일본과의 관계」, 『東洋學學術會議講演』 6,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1976.
- 장영백, 「『詩經·頌』에 나타난 憂患意識 初探」, 『중국어문학논집』 61, 중국어문학연구회, 2010.
- 허남춘, 「혜성가·도술가의 일원론적 세계관과 민심의 조화」, 『語文研究』 56, 어문연구학회, 2008.
- 홍기삼, 「융천사(融天師) 혜성가(曄星歌) 진평왕대」, 『東洋學』 2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4.
- 황병익, 「혜성가(曄星歌)」의 쟁점과 의미 고찰」, 『한국시가연구』 17, 한국시가학회, 2005.

* 이 논문은 2015년 2월 26일에 투고되어,
2016년 3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3월 29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4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Hyeseongga and Defense of Talking Strategy

Lee, Wanhyung*

This paper was derived from point <Hyeseongga> and a tale is a shaman song is not simply magic. If this song and a tale described in such intention which should have been recorded in different stitches. However, <Hyeseongga> and a tale that is clearly <Gamtong> it is listed on the side. You know better <Gamtong> side is that this correlation because it is composed of sensitive information on one's god Buddha. In that sense <Hyeseongga> with a tale that is because it is understood that it is accompanied by a means of defense to deny the entry of the waebyeong. Typically defense has a sense of light that points to the 'M Smell prevent or never to break' or 'objects and actions to defend itself against attacks from other objects or injuries that behavioral defense. The defense is the concept of self or entity encompassing the move to the country mobilized all means, makes a clearance. Resistance between fights between objects or groups, it means defense implications encompassing a war between nations. But in defense of <Hyeseongga> with a tale and battle it actually has some distance. That is, clearly, despite the penetration of waebyeong there was denied because it actively. It deneun be understood as a form of magic in order to express that reason there is a clear limit. Therefore <Hyeseongga> with a tale that is distinctly language of the Buddha as a positive defense can not dare to come to this country, which is something waegu eunghoem expression. When it is possible <Hyeseongga> and its emergence as a comet eradication of convergence angel of the comet seen in the tale, hwanguk of waebyeong can be understood as a natural one story. Only then can divinity Liyeon that emphasize deliberate on the 'Yungcheonsa Hyeseongga King Jinpyung's Period' actions and determine the self-esteem and pride in one bulgukto miracle.

[Key Words] Hyeseongga, defense, talking strategy, Yungcheonsa(Monk Yungchon), Hyangga, Samgukyusa, Liyeon

* Lecturer, Hanbat University